

교도소 같지 않은 친환경 첨단시설

내달 28일 39년만에 이전...장흥교도소 신청사 가보니

장흥교도소가 39년 만에 신청사로 이전한다. 장흥교도소(소장 윤재권)는 지난 8일 신청사 시행사로부터 모든 시설물을 인수받아 특수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보안점검 등 시험가동을 거친 후 8월 28일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975년 4월 장흥읍 원도리 200번지 일원에 문을 연 장흥교도소는 39년 만에 용산면 어산리 47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정식 개소에 앞서 장흥교도소 신청사를 직접 살펴봤다.

장흥교도소는 총 464억원을 들여 부지 16만7919㎡(5만여평)에 건물면적 2만104㎡(13개 동) 규모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친환경 교도소로 건립됐다.

정문 앞에서 바라본 장흥교도소 전면 건축물은 높은 담에 둘러싸인 일반 교도소와는 달리 연구소 같은 분위기로 친근감 있게 배치됐다. 행정용 사무실 뒤편에 가려진 각종 수형

**바닥 난방·TV 등 편의시설
수형실, 열쇠 대신 전자카드
수형자·가족 숙박 펜션도**

관련 시설물들은 중앙통제실에서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첨단 전자경비 시스템을 갖췄다. 자물쇠로 열고 닫던 모든 수형실 문은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 교도관들의 지문을 이용한 전자카드로 출입하게 변화됐다.

남녀 모든 수형자방 역시 처우개선과 인권유린 방지차원에서 턱을 없앴고 바닥 난방을 갖췄으며 TV 등 편의시설까지 마련됐다.

또한 눈에 띄는 시설로는 수형자와 가족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숙박·속식을 할 수 있는 펜션(2동) '가족 만남의 집'이 마련됐다. 이 밖에 면회실에 화상 점검실과 인터



다음달 28일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일원으로 이전해 개소하는 장흥교도소 신청사 전경.

컴이 설치돼 원거리 면회객들의 편의를 돕게 했다.

앞으로 장흥교도소는 신청사내 편백나무 침대와 가구, 옷 등을 생산하는 공장(내·외부) 두 곳에서 연간 1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흥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1년여 전부터 지역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도소 소유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자산관리공사)가 어떤 절차로 매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내일부터 9일간 강진 청자축제 한·중·일 도자축제 함께 열린다

'제42회 강진 청자축제'가 '휴, 블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강진군 대구면 청자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강진군과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저장성 퉁취안(龍泉市),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佐佐木町)이 참여하는 '한·중·일 도자문화축제'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축제는 고려시대 선조 무명 도공들의 안식과 님을 추모하기 위해 도조사에서 제를 올리는 의식행사(무명도공 기원제)를 비롯해 기획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축제의 주체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은 '명품청자 전시·판매전'(한·중·일 도자 특별판매)이다. 강진 개인요에서 생산한 다양한 청자와 중국 용천시, 일본 하사미정에서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 및 판매한다.

또한 제14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입상작 전시를 비롯한 한·중·일 도예작가 초대전, '꽃과 고려청자' 특별전, 청자골 어린이 도예작품전 등 다양한 청자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청자를 왕실로 진상하는 장면 등을 연출하는 '고려왕실 행차 퍼레이

드'와 강진청자 편중(궁중 제약에서 사용되는 전통 악기) 연주회 등 공연행사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축제에 이어 올해도 특별 할인을 시행해 명품 청자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 기간 동안 청자를 구입할 경우 기본 30%에 5%를 추가해 총 35% 특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5% 추가 할인은 이번 축제를 주관하는 향토축제추진위가 지원했다. 용천 청자 20품목 45점, 용천 생활자기 41품목 278점, 일본 생활자기 56품목 964점이 원산지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 밖에도 공연과 레저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진다. 26일 밤 9시 마량항에서 토요일 음악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낭만 콘서트'가 열린다. 27일에는 32개팀 160명(팀당 5명)이 참여하는 서바이벌 게임 대회도 청자촌내 게임장에서 열려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인다.

축제 관계자는 "청자를 전시하고 관람하고 공연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닌 오감(五感)을 만족시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와 편지 등을 볼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유물 기념관'.

강진 다산 정약용 유물전시관 내일 개관

도암면 만덕리에...수장고·전시실 갖춰 저술·편지 등 전시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전시관이 강진에 문을 연다. 강진군은 26일 도암면 만덕리에서 다산 정약용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갖는다.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된 유물전시관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뮤지엄실, 카페테리아가 들어섰고, 2층에는 다목적 홀, 체험교실, 전망테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상설전시장은 ▲수학과 관료생활 ▲유배생활과 다산학단(茶山學團) ▲해배(解配)이후 저술정리 등 해당시기 별로 구성돼 있다. 전시유물로 다산의 각종 저술과 편지(간찰)를 비롯해 추사 김정희 '추사

수화첩'을, 이인형 '신야집', 정학연 '시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올 12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2015년부터 유료 입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17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다산 선생의 외손자이자 제자인 방산 윤정기(1814~1879) 선생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방산선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사)다산연구소 박석우 이사장의 '경기실학과 호남 실학' 제목의 기조발표에 이어 한양대 정민 교수의 '새 자료를 통해 본 다산의 문답형 제자 강의' 등 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전남 농업박물관 "봉숭아물 들이러 오세요"

내달 2~31일 체험행사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이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아 방문한 학생들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내 야외 정자에서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업박물관은 이 행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야외전시장 곳곳에 봉숭아꽃밭을 조성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체험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미리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무료 제공한다. 또 봉숭아물을 좀 더 예쁘게 들일 수 있는 방법과 유래

에 대한 안내 패널도 행사장에 배치해 누구나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박물관은 외래 화장품이 보급된 이후 잊혀져 간 우리의 고유 전통 미 풍습을 재현해 참가자들이 직접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박물관 관람료를 내면 체험비는 무료다.

한편 농업박물관은 여름방학 동안 부채 만들기, 장수풍뎅이 키우기, 한지인형 만들기, 화채 만들기, 쌀 국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동평 영암군수 창조경영인 대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전동평 영암군수(사진 오른쪽)가 지난 23일 서울 프리아 호텔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창조경영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재능기부협회와 미래지식경영원이 주관하는 '창조경영인 대상'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대표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 군수는 취임 후 건축과 토목 중심의 시설중심보다 인간중심, 행복중심으로 군정방향을 정하고, 사회·경제·환경 등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공약과 복지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동평 군수는 "앞으로 창조적인 경영을 통해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영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을 건설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새 얼굴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시설 정착 노력"

김희웅 전남문화원연합회장



"예향 전남의 아름답고 풍부한 유·무형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희웅(73) 전남문화원연합회회장(장흥 문화원장 겸임)은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지방문화원을 생활문화 시설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지역 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 간에 상호 긴밀한 정보공유와 소통 교류를 통해 전남의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 연합회장은 "현행 전국 중

앙 문화원으로 국한돼 있는 지원조례를 시·군 지방문화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시·군 문화원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자문 사업단'으로 지정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연합회장은 앞으로 2017년 7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정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철조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력유재관

명품 가든/명품주택 급처분

평안한 노후 안정적인 수입 두 마리 토끼 잡을수있는 명품 다이어 몬드 전원 가든과 주택을 안내합니다

- 전남 영암 13번국도 ㄷ자코너
- 대지 1,053㎡
- 가든1층 133㎡
- 주택1층 80㎡
- 노래방 50㎡

2009.6월에 활동적벽돌 9만매를 특수 주문제작하여직접 시공했습니다 4개월 냉난방없이 평균20도를 유지하는 [명품 가든과 주택]입니다

월출산 방법 최고 요충지로서 가든 영업또한 1일100만원-200만원을 유지하고있는 특급상권입니다

급처분 가격은 원가수준인 4억4,700만원입니다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오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경매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군서농공단지인근.도로접 정남향.전원주택건축가능

전 1,613㎡
최저가 1,100만원

신안 중도면 대지 4,858㎡
엘도리도500m거리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억994만원

화순 도곡면 도곡원천영 3.4층 무인숙박시설 대지 2,057㎡
건물 2,332㎡,
주변개발호제있음 북충형.실내 고급인테리어
감정가 24억9천만원
최저가 17억4천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주원
010-7171-7610